

## IX. 경영관리

### 19. 양계산업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 가.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전망

- 계란 생산에 새로이 가담하는 신계군 감소로 2017년 계란 생산량은 54만 5천 톤으로 추정되고 1인당 계란 소비량도 10.6kg으로 예상된다. 2017년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87.5% 상승한 2,048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 HPAI에 따른 사육 마릿수 감소는 1~2년 이내에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산란계 사육 마릿수 2021년 7,197만 마리, 2026년 7,457만 마리로 전망된다.
- 산란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계란 생산량은 2021년 69만 2천 톤, 2026년 71만 6천 톤으로 예상되며, 계란 생산량 증가로 1인당 계란 소비량은 2021년 13.3kg, 2026년 13.6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란 생산 회복으로 계란 산지가격은 2019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1,259원, 2026년 1,524원으로 전망된다.

〈 계란 수급 및 가격전망 〉

	구분	단위	2016	전 망		
				2017	2021	2026
기 본 안	사육마릿수	반 마리	6,933	5,727	7,197	7,457
	계란 생산량	천 톤	640.0	558.6	691.5	716.3
	1인당 소비량	kg	12.5	10.9	13.3	13.6
	계란 산지가격	원/특란 10개	1,092	1,772	1,259	1,524
시 나 리 오	사육마릿수	만 마리	6,933	5,408	7,196	7,457
	계란 생산량	천 톤	640.0	544.6	691.4	716.3
	1인당 소비량	kg	12.5	10.6	13.3	13.6
	계란 산지가격	원/특란 10개	1,092	2,048	1,260	1,524

주) 1) 사육 마릿수는 분기별 평균치임.

2) 2016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6)

나. 육계사육과 닭고기 수급 전망

- 2017년 6월 이후 종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어 병아리 생산 및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 예상되며, 2017년 도계 마릿수는 10억 595만 마리로 추정된다
- 향후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의 영향으로 육계 사육 마릿수는 2021년 9,791만 마리, 2026년 1억 719만 마리로 전망된다.
- 닭고기 수입량은 점차 확대되어 2021년 닭고기 수입량은 14만 2천 톤, 2026년 14만 4천 톤수준으로 예상된다.
- 2017년 하반기 닭고기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반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17년 육계 산지가격은 생체 kg당 1,559원으로 전년 대비 3.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은 수요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1년 육계 산지가격은 kg당 1,656원, 2026년 1,972원으로 전망된다.

〈 닭고기 수급 및 가격전망 〉

구분	단위	2016	전 망		
			2017	2021	2026
사육마릿수	반 마리	8,935	9,100	9,791	10,719
생산	천 톤	599.0	608.9	628.6	661.9
수입	천 톤	127.5	134.6	142.3	144.2
1인당 소비량	kg	13.9	14.1	14.3	14.6
산지가격	원/생체kg	1,513	1,559	1,656	1,972

주) 1) 1인당 소비량은 정육 기준임.

2) 산지가격은 명목가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6)